

俞吉濬의 英文書翰

李 光 麟

昨年(1987년) 여름, 미국 마사추세츠州 「셀럼」(Salem)市 所在 피바디 박물관(Peabody Museum)에서는 박물관의 所藏品을 정리하는 중에 俞吉濬(1856~1914)이 「모오스」(Edward S. Morse, 1838~1925) 앞으로 보낸 20 통 가까운 편지를 발견하였다. 편지의 발송 날짜는 1884년에서 1897년에 걸쳐 있다. 受信者 「모오스」는 당시 피바디 박물관의 관장이었고, 유길준의 스승이었다.

박물관의 學藝官 「빈」(Susan S. Bean) 박사는 즉각 그 편지의 복사본을 만들어 유길준의 長孫 俞炳德씨에게 보내 왔다. 이에 유병덕씨는 그 편지의 복사본을 다시 몇 部 만들어 유길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配付함으로써 學界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림대학의 柳永益교수는 당시 “유길준과 갑오경장—1894년 천일개혁파로서의 등장배경을 중심으로”(『한림대학 논문집』 4집, 1987)라는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어서 곧 그 편지를 利用하였고, 그 편지를 年代順으로 分類하여 논문의 註에 붙이기도 하였다.

筆者도 편지의 사본을 얻어 읽어 볼 수 있었다. 유길준이 영어공부를 한지 6개월도 안된 시기에 편지를 써서 스승에게 보낸 것을 보고 感嘆을 하였다. 물론 편지 중에는 文法이나 철자법이 틀린 데가 若干 있기는 하였으나 뜻이 통하지 않는 것은 없었다. 다만 편지 중에 복사가 잘 안된 部分이 있어 무슨 單語인지 明確치 않은 것이 있었고, 또 편지의 끝 部分이 잘려 있는 것도 있어서 혹 미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직접 피바디 박물관을 찾아가 편지의 原本을 찾아 對照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미국 유학시절의 俞吉潸(1856~1914)
「담마 아카데미」에 入學하기 전 「셀럽」 사진관에서 찍은 것이다.



「모오스」(Edward S. Morse, 1836~1925) 교수의 초상화

Tokyo Japan, 2th July '96

Prof. E. S. Morse.

I have sending my letters to you, first by Shanghai, secondly by Japan, and thirdly by Korean Legation in Washington, but I have not received an answer from you. I would ^{not} write you a long letter ~~this~~ time, for I doubt it can reach to you or not. Send me an answer through Mr. Fukuzawa.

Please give my kindest regard to all of your family, and the people of Selem.

Yours Truly
Yun Kil Chun.

다행히도 今年(1988년) 1월 필자는 미국을 訪問할 기회가 있어 피바다 박물관을 찾았다. 하바드대학 엔칭연구소의 訪問교수로 가 있는 서강대학의 金旭東교수 夫婦와 함께 박물관에 가서 學藝官「빈」박사의 도움으로 原本과 對照해 볼 수 있었다. 그동안 1백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 편지 用紙는 어떻게 變色이 되어 있었으나 글자는 또렷하여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편지 하나 하나를 대조하는 중에 유병덕씨에게 보낸 복사본에 빠져 있는 것도 하나 발견하였다. 「우리들이 作成한 改革案」(The Reformation we made)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은 必是 편지와 同封되어 「모오스」에게 보내졌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들이 作成한 改革案」右側 맨 위에 [4], 즉 [4]面이라고 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4]앞에 3面に 달하는 편지가 同封되어 있었을 것이다. 물론 현재는 편지 내용은 온데 간데 없고 改革案만이 남아 있다. 改革案 뒤에 나오는 글도 편지투로 써어져 있다. 이것도 유길준의 英文書翰 속에 삽입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었다. 곧 「빈」박사에게 복사를 依頼하였다.

英文書翰 중에는 여태까지 우리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여러가지 밝혀주고 있었다. 이를테면, 유길준과 「모오스」와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였다는 사실, 한국에서 甲申政變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 바로 學業을 中斷하고 귀국길에 오른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즉 1885년 6월까지, 그러니까 入學한지 1년간 ‘담마 아카데미’(Dummer Academy)에서 修學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또 그의 政治 혹은 宗教觀 등도 살필 수 있었다. 따라서 편지 全部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소개하면 유길준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判斷하였다.

이제 편지 하나 하나를 번역 소개하기 앞서 편지 全體를 年代順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번 호	집필날짜	집필장소	겉 이
1.	June 7, '84	Essex	2 枚
2.	[July 2, '84]	[Essex]	3
3.	Sept. 24, '84	Byfield	2
4.	Friday [Sept. or October, '84]	[Byfield]	3
5.	[October, '84]	[Byfield]	6
6.	Nov. 3, '84	Byfield	3
7.	Dec. 17, '84	South Byfield	1
8.	[Dec. 25, '84]	New York	1
9.	Dec. 27, '84	New York	1
10.	Jan. 28, '85	South Byfield	2
11.	Feb. 3, '85	South Byfield	2
12.	March 20, '85	South Byfield	1
13.	[June, '85]	[Ship]	4
14.	[Oct.] 8, '85	Port Said, Egypt on board of Denbeighshine	2
15.	Dec. 2, '85	On board of Hiroshima-Maru	6
16.	March or April, '96	Tokyo	7
17.	July 2, '96	Tokyo	1
18.	Dec. 3, '96	Tokyo	3
19.	June 7, '97	Tokyo	2

※ []는 피바디 박물관과 筆者가 추측하여 넣은 것임.

[1]. 1884년 6월 7일, 「에섹스」(Essex)에서

敬愛하는 「모오스」 교수님

오늘은 제가 「셀럼」에 와서 오랫동안 교수님과 교수님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다가 교수님의 집에서 나온 지 첫째 일요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저는 매우 건강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 좋은 기후, 그리고 친절하고 잘 보살펴 주시는 집주인 아주머니와 가족 때문에 즐겁습니다. 언제 저의 집에 오시겠습니까? 만약 교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제가 다음 주 일요일에 교수님 댁을 방문하여 하루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가족과 「부록크스」(Brooks) 가족에게 問安을 바랍니다. 敬具. 유길준.

E.S. 「모오스」 교수님께

▲ 해설

- ① 「에섹스」란 「셀럼」一帶를 가리킨다.
- ② 한국 최초의 遣美使節, 즉 報聘使의 正使 閔泳翊이 뉴욕을 떠나 귀국길에 오른 것은 1883년 11월 16일이었다. 그러나 유길준은 그보다 앞서 「모오스」 교수를 찾아 「셀럼」으로 갔었으니 이에 대해서 「보스턴」에서 간행되고 있던 신문 「선데이 글로브」(The Sunday Globe)紙의 1883년 11월 10일자에, “A Young Corean Staying with Professor Morse”라는 記事가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어쨌든 이 때로부터 다음 해 즉 1884년 6월 초에 이르러 「모오스」 교수 집을 나와 下宿집으로 옮겨갔다면, 「모오스」 교수 집에는 6개월 이상이나 체류하였던 셈이 된다. 유길준이 옮겨간 下宿집은 「린덴」街 (Linden Street) 16번지에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拙稿, 「美國留學時節의 俞吉濬」(『改訂版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70)을 참조할 것.
- ③ 「모오스」를 교수라고 부른 것은 「모오스」가 1871년에서 74년까지 「메인」(Maine)州 「보우두윈」(Bowdoin) 대학의 교수를 歷任하고, 또 77년에서 79년까지 日本 東京大學의 초빙교수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유길준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피바디 박물관의 관장이었으나 항상 그를 존경하여 교수라고 불렀다.
- ④ 편지 속에 나오는 「부록크스」는 「모오스」館長의 女秘書였다. 정확한 그녀의 이름은 Margaret W. Brooks였다.

[2].

교수님께서 저에게 보낸 친절한 선물, 즉 英語와 科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資料集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책은 교수님의 親切의 表示이기도 하지만 제가 저의 母國으로 돌아갈 때 미국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먼저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個人的으로 저 자신이 미국 지식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가족과 교수님의 誠實한 친구들에게 安否를 부탁드립니다. 敬具. 유길준.

▲ 해설

편지를 쓴 날짜가 表記되어 있지 않으나 피바디 박물관에서는 1884년 7월 2일에 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편지를 쓴 場所 또한 없으나, 첫째 편지와 마찬가지로 「에섹스」였을 것이다.

[3]. 1884년 9월 24일, 「바이필드」(Byfield)에서

敬愛하는 「모오스」 교수님

어제 교수님의 친절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건강하셔서 중요한 글을 쓰고, 또 계속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교수님의 걸을 떠나게 됨으로 제가 웅당 도와야 될 일을 도와 드리지 못해 未安합니다. 그러나 저를 이렇게 좋은 學校에 보내 「퍼어킨즈」(Perkins) 氏의 보호하에 있도록 마련하여 주신 그 親切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퍼어킨즈」氏와 그의 夫人은 저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 줍니다. 이 때문에 저는 幸福합니다.

교수님의 가족과 「부르크스」氏의 가족,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후쿠자와」에게 問安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수님의 성실한 친구라는 것을 믿어 주세요. 유길준.

「에드워드」 S. 「모오스」 교수님께

큰 사람 모수

大人 毛遂

Greatman Morse

▲ 해설

- ① 「바이필드」 혹은 「사우스 바이필드」(South Byfield)는 유길준이 入學한 「담마 아카데미」(Dummer Academy)의 所在地이다. 「셀럼」市의 서쪽에 있고, 그곳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내에 있다.
- ② 「퍼어킨즈」는 당시 「담마 아카데미」의 校長이었다.
- ③ 유길준을 「담마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은 물론 「모오스」였다.

- ④ 「후쿠자와」란 유길준이 1881년 日本에 유학하였을 때 修學한 慶應義塾의 창설자 福澤諭吉의 두 아들 福澤一太郎과 捨次郎이었다. 그들은 당시 「보스턴」(Boston)市에 머물고 있었는데, 한때 「셀럽」市로 「모오스」를 찾아가지 않았나 생각된다. 福澤諭吉의 養子 「후쿠자와 모모노스케」(福澤桃介)도 1887년에 「담마 아카데미」에 入學하여 1년간 수학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福澤桃介傳』(福澤桃介翁傳記編纂所, 1939) pp. 77~78을 참조할 것.
- ⑤ 편지 마지막에 「큰 사람 모수」라고 한글과 漢字, 그리고 英語로 쓰고 있는데, 이를 보면 유길준이 얼마나 「모오스」를 존경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4]. 金曜日, 「바이필드」에서

敬愛하는 「모오스」 교수님

교수님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야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항상 저의 공부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시험을 치러 87점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학생들보다 16점이나 높은 점수였습니다. 물론 100점보다 13점이나 낮기는 합니다만.

처음에 선생님들은 앞서 시험을 치룬 바 없으니까 저에게 시험을 免除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新入生인 데다가 外國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여 다른 학생들과 같이 치루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좋다고 말씀함에 두려움을 갖고 시작하여 지난 週부터 若干 더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多幸히도 별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공부하지 않았던 하나의 문제를 除外하고 말입니다.

교수님의 가족, 「부룩크스」氏 가족에게 問安을 바랍니다. 교수님의 忠實한 弟子가 될 것으로 저를 믿어 주세요. 유길준.

「에드워드」 S. 「모오스」 교수님께

▲ 해설

- ① 이 편지를 쓴 날짜는 表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1884년 9월이나 10월에 「담마 아카데미」에서 썼을 것이다.

[5].

敬愛하는 「모오스」 교수님

母國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母國에서가 아니라 日本에 居住하고 있는 저의 친구로부터 보내온 편지를 친절하게도 부쳐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의 편지 중에는 淸佛戰爭 때문에 한국의 商業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학생에 대해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週 시시한 문제를 갖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먼저 會長과 書記 選出이 있었고, 다음으로 여러 문제에 대해 協議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두 학생이 各己 意見을 내게되어 投票로서 決定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의견 중에는 若干 다른 것이 있었으나 하나는 다른 의견보다 더 좋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의 本質이 서로 다르고,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의견 가운데 옳은 하나를 택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反對를 한 학생을 除外하고 말입니다.

저는 投票를 보고 놀랐고, 또 저 自身 若干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학생들은 참으로 知性的이면서 良心的, 그리고 獨自的인 立場을 取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학생들은 미국 내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平均的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국민이 이 地球上的 다른 국민보다 더 識別力과 公德心, 그리고 獨自的인 判斷을 내리고, 또 그 나라의 思想傾向을 모두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다른 학생들도 같은 資質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없이는 國民性이 形成될 수 없을 것이고, 그 國民性은 市民의 性格 如何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까닭은 國民性이란 個人의 市民意識으로 形成되는 것이고, 모

든 市民은 어린 時節을 거치는 것이므로 오늘의 어린이는 後世의 市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학생들은 미국을 건설하는 要素가 됩니다. 그것은 모두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또 지금도 存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後孫에 이르기까지 地球上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해설

- ① 편지를 쓴 날짜가 없으나 피바디 박물관에서는 1884년 10월로 추정하고 있다. 또 편지에는 끝을 맺지 않고 있다. 만약 內容이 그것으로 그친다면 적어도 맨 마지막에 유길준의 署名이라도 있어야 될 터인데 없다.
- ② 미국 국민의 獨立心を 서술한 흥미있는 글이다.

[6]. 1884년 11월 3일, 「바이펠드」 「담마 아카데미」에서

敬愛하는 E.S. 「모오스」 교수님

교수님의 친절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흥미있는 內容이 들어 있는 저의 父親의 편지도 받았습니다. 편지의 內容을 소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國王이 國民의 衣服을 고치라는 諭示를 全國에 내렸답니다. 누구나 그 諭示에 反對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領議政과 各曹 判書들이 傳統을 阻害한다 하여 不滿을 表示하고 國王으로 하여금 諭示를 撤回토록 하였더니 國王이 怒하면서 그들에게 지금은 토의할 시기가 아니며, 傳統의인 것을 近代의인 것으로 바꿔야 하며, 衣服制度의 改良은 그 첫째 것에 해당된다고 하였답니다.

이와 같았음에도 不拘하고 그들은 國王의 意思에 反對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領議政은 辭意를 表明하고, 一部 判書들은 귀항을 당하였다 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일을 分明히 이상하게 여기실 것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國王이 그와 같은 權力을 行使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래 계속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火山과 地震, 그리고 墳泉에 關한 理論 및 영향, 또 大陸의 生成過程에 대한 시험을 치러 저는 94點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0問項에 달하는 數

學시험은 100 點을 맞았습니다.

저를 교수님의 忠直한 弟子가 될 것으로 믿어 주세요. 유길준.

「에드워드」 S. 「모오스」 교수님께

▲ 해설

- ① 衣服改良에 대해서는 『承政院日記』 高宗 21년(1884) 閏 5월 24, 25, 26, 27, 29일, 6월 1, 2일 條를 참조할 것. 요컨대 國王이 衣服을 簡素化하는 方策을 公布하자 大臣들이 反對上疏를 한 기사가 실려 있다.
- ② 衣服改良의 문제는 報聘使의 正使 閔泳翊이 미국과 유럽을 視察하고 돌아와 건의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George M. McCune and John A. Harrison ed.,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Lucius H. Foote to Secretary of State, December 17, 1884, enclosure in 128, Report of information relative to revolutionary attempt in Seoul, Corea by Ensign George C. Foulk, December 4-7, 1884를 참조할 것.
- ③ 衣服改良에 대한 國王의 諭示가 내려진 것이 高宗 21년 6월 3일(양력 1884년 7월 25일)이었고, 유길준이 「바이필드」에서 편지를 받은 것이 그 해 11월 초였다. 따라서 서울에 계시는 父親의 편지가 유길준에게 전달되기는 3개월 이상의 세월이 흐른 셈이 된다.

[7]. 1884년 12월 17일, 「사우스 바이필드」(South Byfield)에서

敬愛하는 S.E. 「모오스」 교수님

교수님께서 편지로 저에게 指示한 것처럼 하겠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분위기가 惡化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以來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이든 아니든 間에 悲痛의 슬픔을 느끼지 않고서는 견디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는 소식을 듣는 순간 곧 바로 교수님 곁으로 가서 친절한 忠告를 받아야 했으나 日本으로부터 정확한 보고가 전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判斷하였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忠直한 弟子입니다. 유길준.

▲ 해설

- ① 이 편지는 1884년 12월 4일에서 6일까지 서울에서 일어났던 甲申政變의 소

식을 듣고 한참동안 비통에 잠겼다가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쓴 것이다. 비통에 잠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가 쓴『西遊見聞』序에, 「(上略) 甲申의冬을當키야 講室間難키는際에 學徒一人이 新聞小片을 手키야 曰 子の國에 變이有키다키거늘 愕然히 顔色이 動키야 霸舍에 歸호則 時에 大雪이 庭松을 壓키고 陰風은 牕鏡을 打키니 終夜 枕上에 輾轉키야 睡를 不成키고 故國의 念이 萬里重溟을 隔키야 來往키디 奔問키는 義를 未伸키고 中間에 音聞이 漠然호에 哀情이 憤氣호에 晝宵彌激키나 能히 奮飛치 못함이 恨이로라」라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담마 아카데미」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이 편지內容으로서도 알 수 있듯이 日本으로부터 정확한 소식을 들을 때까지 학업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고 「모오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다. 당시 日本에는 유길준의 一家되는 사람이 유학하고 있었으므로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 같다.

[8].

어제 午後 뉴욕 中央停車場에 無事히 도착하였더니 「프레이자」氏가 正時に 그곳에 나와 있어서 만났습니다. 저는 「오렌지」(Orange)市에 도착하는대로 교수님께 편지를 보내려고 하였으나 오늘 아침까지 편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 해설

- ① 이 편지는 葉書에 쓴 것이다. 편지를 쓴 날짜는 써어져 있지 않으나 피바디 박물관에서는 1884년 12월 25일로 추정하고 있다. 앞의 편지, 즉 No. 7을 「모오스」 교수에게 보낸 뒤 유길준은 뉴욕에 갔었다.
- ② 「프레이자」란 Everett Frazer를 가리킨다. 그는 東洋貿易에 종사하고 있던 商人이었다. 報聘使가 뉴욕을 訪問하였을 때 접근하고 뉴욕市 郊外의 「오렌지」市 自宅으로 하루 저녁 모셔 대접한 일이 있었다. 報聘使의 正使 閔泳翊은 이와 같은 대접을 고맙게 생각하여 國王에게 보고하고 그를 뉴욕駐在 名譽韓國總領事로 任命하였다. 任命 날짜는 1884년 1월 14일이었다. 韓國政府에서 「워싱턴」市에 公使館을 개설하기 4년 전의 일이었다.
- ③ 유길준이 「프레이자」를 만나러 「뉴욕」에 간 것은 한국의 실정을 좀더 알고 싶고, 또 國費장학생이었던 자기에게 韓國政府에서 계속 장학금을 보내줄 것인지를 確認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프레이자」를 통해 장학금이 전달되었기 때문이었다.

[9]. 1884년 12월 27일, 「뉴욕」에서

敬愛하는 「에드워드」 S. 「모오스」 교수님

저를 교수님의 영향과 보호를 받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 저에게 自負心을 갖게할 뿐만 아니라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웰」(Lowell)氏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는 제가 이 商業都市에 온 以來 明白한 洞察力과 친절한 태도로 저를 案内해 주었습니다.

駐韓독일公使가 한국事態에 관한 電報를 받았다는 이곳의 뉴우스를 읽고 安堵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소식을 게재한 신문을 읽었는데, 이것은 교수님의 理論에도 크게 관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에게 忠實토록 하겠습니다. 유길준.

▲ 해설

- ① 「로웰」氏란 報聘使의 案内役을 맡았던 Percival Lowell을 가리킨다. 그는 報聘使의 副使 洪英植 등과 함께 1883년 12월 20일 한국에 와서 4개월간 체류하였다가 1884년 3월 18일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 돌아간 사람이다. 유길준도 報聘使의 隨員이었던 관계로 「로웰」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뒤 「로웰」은 한국에서의 體驗記를 “Choson: The Land of Morning Calm”이란 이름으로 1885년 보스턴(Boston)에서 出刊하였다.
- ② 駐韓독일公使가 한국事態에 관한 電報를 받았다는 記事는 독일 總領事 「젬부쉬(Zembush)」가 本國政府로부터 甲申政變 직후 한국과 조약(漢城條約)을 체결하기 위해 全權大臣으로 來韓한 日本의 外務卿 井上 馨에게 한국을 中立國으로 해야된다고 주장한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한국이 中立國이 되면 어떤 特定國家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유길준은 좋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모오스」 교수도 恒常 한국이 中立國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 같다.

[10]. 1885년 1월 28일, 「마사츄세츠」州 「사우스 바이필드」에서

敬愛하는 「에드워드」 S. 「모오스」 교수님

이번 學期는 다음 3月末에 끝납니다. 저 自身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우리와 같은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政策에는 크

게 失望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에 대해 子息과 같은 道理와 愛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過去에도 그러했고 現在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迷信이나 나쁜 영향을 받는다해도 永遠히 變함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 저의 不注意로 교수님의 신경을 건드리기는 하였읍니다만. 忠實한 유길준.

▲ 해설

학교 생활에 苦干 艱難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1]. 1885년 2월 3일, 「마사츄세츠」州 「사우스 바이필드」에서

敬愛하는 「에드워드」 S. 「모오스」 교수님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國民에 대해 친절하면서도 걱정해 주시는 태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불쌍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로웰」氏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自己卑下를 하고 있고, 오늘날의 外勢침투에 대해 危險하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과 같은 誠實하고도 科學的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에 關心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將來의 希望을 가지는 것 外에는 한국을 救濟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셀럼」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恒常 若干의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토요일에 교수님 댁으로 틀림없이 가겠습니다. 敬具. 유길준.

「마사츄세츠」州 「셀럼」의 「에드워드」 S. 「모오스」 교수님께

▲ 해설

「로웰」氏와는 계속 親交가 유지되었던 것 같다.

[12]. 3월 2일, 「사우스 바이필드」에서

敬愛하는 「모오스」 교수님

교수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日本에서 온 편지까지 보내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學期는 다음 週末에 끝이 납니다. 저는 그때 집으로 가겠고 책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敬具. 유길준.

「에드워드」 S. 「모오스」 교수님께

▲ 해설

편지에 年代가 써어져 있지 않으나 다음 週末에 이번 학기가 끝난다는 것으로 보아 1885년일 것이다.

[13].

저의 집으로 돌아가는 旅行은 오히려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旅行준비를 하는 것 外에 교수님을 찾아가 作別人事를 하고 저의 뜻을 전달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出發에 있어서 교수님의 가족들도 만나볼 기쁨을 갖지 못하였고, 또 제가 똑똑한 지식을 얻지 못하고 미국을 등지고 떠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愛人처럼 저를 믿어 주실 것으로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수님의 친절에 대해, 그리고 지도에 대해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또한 교수님에 대해 저는 誠實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革命이 일어났고 희망이 없다고 들었던 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인데도 우리들에게 惡에 대해 善으로 對應하도록 強要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나라들이 우리들이 弱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利用하여 모든 惡을 우리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우리들의 善을 除去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어떻게 하면 活動力을 되찾고, 惡 代身에 正義를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結論

에 도달하였읍니다. 活動力 以外에 어떠한 宗教도 도움이 안되며, 그 活動力이란 將來를 위한 준비에 있어서 誠實한 생각을 갖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로 돌아가 나라에 대해 무엇이 좋은가 近者에 제가 結論내린 것을 우리 國民들에게 提議하러 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故國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처지를 이해하여 주시도록 저는 교수님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지가 없으면 교수님께서 재앙에 대한 예감과 같은 우울한 感情과 不確實한 생각을 우리나라에 대해 갖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는 종교로서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이 宗教를 受容토록 우리 國民들에게 提議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國家의 국민들은 자기나라에 대해 反抗을 하지 않고 항상 平和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世上의 어떤 宗教도 믿지 않습니다.

교수님께 말씀드린 이후로 저는 대체로 宗教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계속 엿보고 있고 疑問을 품어 보기도 하고 가끔 책을 읽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創造, 救援, 判斷, 審判, 罰, 洗禮, 山上垂訓이 2,3천년 전에 中國이나 印度에 한때 있었고, 그것의 어떤 것은 옛날처럼 神性함과 道德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저는 發見하였읍니다. 물론 이와 같은 屬性은 어떤 宗教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異教徒의 代贖制度를 採用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萬若에 紹介되었다면 단순히 낡은 形式을 되풀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古代에 實施했던 것에 대한 再版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내일을 생각지 말라”느니, “惡을 善으로 보답하라”는 句節을 읽고 저는 놀랐읍니다. 이것은 기독교國家에서는 通用되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우리 國民들 사이에서 實踐되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은 교수님께서 이해하시다시피 우리 國民들은 商行爲를 물랐기 때문이며, 그 結果로 나라는 매우 弱해졌읍니다.

▲ 해설

- ① 이 편지에는 날짜가 表記되어 있지 않으나, 1885년 6월 미국에서 「유럽」으로 向하는 船上에서 쓰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유럽」으로 떠날 때, 「모오스」 교수와 議論할 겨를이 없었음을 이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뉴욕」이나, 「보스턴」에서 「유럽」으로 떠나는 배편이 高等學校의 修了式이 거행된 무렵에 있었던 것이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 ② 유길준은 「유럽」으로 떠나면서 「모오스」교수에게 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뉴욕駐在 韓國名譽總領事 「푸레이자」에게도 편지를 보냈던 것 같다. 그것은 「푸레이자」가 한국정부 앞으로 유길준의 편지를 우송하였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舊韓外交文書：美案」Ⅰ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文書番號 262를 참조할 것. 물론 편지의 內容은 없다.
- ③ 이 편지는 유길준의 宗教觀을 살필 수 있는 貴重한 것이다.
- ④ 끝의 部分이 喪失되어 있다. 「피바디」 박물관에 保管 중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4]. 1885년 8일, 「이집트」의 「포트 사이드」(Port Said)港口 앞 「덴바이샤인」(Denbeighshine) 船上에서.

“편지를 粗雜하게 썼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敬愛하는 「에드워드」 S. 「모오스」 교수님

내일 우리들은 「포트 사이드」에 入港할 것입니다. 그러나 편지를 쓸만큼 充分한 시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汽船이 이 港口에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이상 停泊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港口에 도착하기 직전에 써서 도착하는 순간 부치려고 합니다.

이 汽船은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 가지 않고 上海, 香港, 그리고 日本으로 갈 것입니다. 日本에 도착하는 데 約 7週間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긴 旅行에 倦怠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世界一週를 한다는 것으로서 저에게 自負心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저에게 그 모든 것이 迫進感을 줍니다. 저는 이미 따뜻한 地域에서 熱帶地域에,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季節로는 겨울에서 여름을 거치는 地域을 旅行하였습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저에게 친절한 忠告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忠告를 우리 國民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 新聞 조각은 제가 「런던」(London)에서 正確히 관찰한 證據입니다. 제가 「런던」의 버스에 관해 쓴 뒤에 그것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나라에서 잘 관찰하였음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 제가 不注意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실로 교수님께서 每日같이 이 地球上에서 무엇이 되도록 저에게 賦課했던 日課에 대한 感謝의 表示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저의 관찰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랑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유길준.

▲ 해설

- ① 이 편지에 날짜는 있으나 달이 表記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1885년 8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0월에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日本의 『朝野新聞』 1885년 11월 28일 字에 依하면, 유길준이 橫濱에 上陸한 것은 그지개, 즉 11월 26일이라고 있다. 그런데 위의 편지에서 「이집트」의 「포트 사이드」에서 日本까지 가는 데 約 7週間 걸린다고 있으니 계산해 보면 「포트 사이드」에서 편지를 쓴 것은 10월임에 틀림이 없다.
- ② 유길준이 미국에서 귀국 卽時 체포되어 7년간 軟禁생활을 하였고, 이 동안에 『西遊見聞』을 著述하였음은 다 아는 事實이다. 책을 著述할 目的으로 西洋文物에 대해 세심한 관찰을 하였음을 위의 편지의 內容으로서도 살필 수 있다.

[15]. 1885년 12월 2일, 「히로시마 마루」(Hiroshima Maru) 船上에서 敬愛하는 E.S. 「모오스」 교수님

교수님의 10월 3일 字 편지와 「에디스」(Edith)嬢의 편지가 同封되어 있는 13일 字 편지, 그리고 「마가레트 부르크스」(Margarett Brooks)嬢의 편지가 同封되어 있는 10월 8일 字 편지를 오늘 橫濱에서 「비겔로」(Bigelow) 교수가 고맙게도 卽刻의으로 저에게 傳達해 줌으로서 받았습니다.

10월 3일 字 편지에는 교수님이 韓國語 편지까지 同封하여 보내 주셨는데, 그 편지 들은 저의 동생과 1萬弗까지 돈을 빌려 쓸 것을 承認한 우리 國王으로부터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읽고 저는 웃지 않

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國王의 措置는 미국에 남아 있는 저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의 親舊가 저에게 베푼 사랑의 表示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친절하게 저를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간단한 말이라도 저에게 주신 데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동생의 편지를 읽고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해 일어난 革命과 관련이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몇 통의 저의 편지가 公開되어 저에게 若干 不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多幸히 저는 친구들에게 疑心스러운 內容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革命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확실히 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으로 믿고 저의 父母님과 친구들에게, 革命家들이 國王과 나라에 忠誠을 다할 때에는 저의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에는 저에게 큰 원수가 되는데, 그 까닭은 그들은 逆賊들이고 우리나라에 대해 큰 害를 끼쳤기 때문이라는 內容을 써서 보낸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內容은 한국政府로부터 저에 대한 疑心을 除去할 수 있었고, 또 國王과 저의 父母님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이 船上에서 저는 많은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배가 몹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오베」(神戸)에 도착할 때에도 편지를 쓸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배가 港口에 도착하게 되면 郵便船이 그곳을 떠납니다.

「존」(John)君과 「에디스」(Edith)·「마가레트」(Margarett)嬢에게 問安 바랍니다. 故國에 도착하게 되면 그들에게 回答을 쓰겠는데 그것은 다음 郵便船으로 그들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저때문에 다시 괴로움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존」(John)에게 미국을 위해, 「마사쥬세츠」를 위해, 淸教徒를 위해, 그리고 「존, S. 모오스」에게 세번 만세를 부른다고 傳해 주십시오.

유길준으로부터

교수님에게 가장 忠直한 유길준

▲ 해설

- ① 「존」(John)은 「모오스」교수의 아들, 「에디스」(Edith)는 딸이다.
- ② 「비겔로」는 William Sturgis Bigelow를 가리킨다. 그는 본시 의사였으나 1882년 5월 「모오스」교수와 함께 日本을 旅行하던 중 佛教에 關心을 갖게 되어, 「모오스」교수가 日本을 떠난 뒤에도 계속 남아 研究를 하였고, 그후 「하바드」대학에서 佛教를 강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Dorthy G. Wayman, *Edward Sylvester Morse: A Biography*, Havard University Press, 1942를 참조할 것.
- ③ 國王이 유길준에게 1萬弗을 빌려 쓰도록 承認하였다고 있는데, 이것은 뉴욕 駐在 韓國名譽總領事 「프레이자」(Everett Frazer)를 통해 빌려 쓰라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 ④ 지난 해에 일어난 革命이란 甲申政變을 가리킨다. 그리고 革命家란 政變을 主導한 金玉均, 洪英植, 朴泳孝, 徐光範 등을 가리킨다.
- ⑤ 유길준이 韓國에 도착하기는 1885년 12월 16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舊韓 國外交關係附屬文書: 統署日記」(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2)를 참조할 것. 俞吉濬은 韓國에 도착 즉시 체포·연금되었던 것이므로 「존」, 「에디스」, 「마가레트」에게 回答을 쓸 수 없었다.
- ⑥ 유길준이 日本에 도착한 것이 1885년 11월 26일, 그리고 「히로시마 마루」船上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은 12월 2일이었다. 따라서 日本 체류 기간은 6일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 동안에 福澤諭吉은 필시 訪問하였을 것이나, 韓國의 金玉均 등 亡命客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16]. 우리들이 作成한 改革案

(1) 國家와 王室 間에 明確한 區分이 그어져야 한다. 즉 國王은 國王이고 단지 國家의 首班에 지나지 않는다. 國王 自身이 國家는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政府組織이나 모든 것이 國家나 國民을 위해 있지 않고 國王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國王은 國民의 生死與奪權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보다 더 惡의 源泉이 되어 國家가 弱해지고 가난해졌다.

(2) 官職에 任命되거나 法的 權利를 누림에 있어서 兩班과 常民間에 어떠한 區別도 있어서는 안된다.

(3) 어떠한 稅金도 國王의 同意없이 徵收될 수 없으며, 稅金을 徵收

하는 方法과 賦課率에 대해서는 法으로 定한다. 그리고 度支部大臣으로부터 任命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稅金을 徵收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王室이나 兩班 혹은 地方官이 稅金의 名目下에 國民의 金品을 착취하여 私有財産에 充當함으로써 國民經濟를 害쳤다.

(4) 判事의 同意 없이는 누구도 拘束할 수 없다. 그리고 公開裁判을 하지 않고 處罰할 수 없으며, 또 家族 한 사람이 나라에 叛逆行爲를 하였을 때 家族全體를 죽이는 따위의 殘忍한 法을 撤廢한다. 또 목을 자르거나, 때려서 죽게 하거나, 自白을 시키기 위해 拷問을 加하는 낡은 處罰方法도 폐지하여 死刑을 함에 있어서는 絞着刑만을 적용한다.

이것 외에 모든 軍人들은 首都警察隊 산하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小學校와 師範學校를 開設하였습니다. 王室의 經費를 1년에 50萬弗로 定하였는데, 이것은 國民의 金品을 不法的으로 착취하거나 王妃가 제멋대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地方長官會議에 대한 規則도 政府에서 公布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國民에게 自由를 누리는 새 生活을 하게 하고 立憲君主制를 實施하는 前段階로 自治를 해야 된다는 것을 體驗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하나의 突發事件, 즉 國王이 러시아公使館으로 逃亡함으로써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王妃는 世界歷史上 가장 나쁜 女子입니다. 그녀는 「폴랜드」의 「메아리」(Mary: 존 3세의 王妃)나 「프랑스」의 「마리에 안트와네트」(Marie Antoinette: 루이 16세의 王妃)보다 더 나쁩니다. 그녀는 邪惡하기 때문에 知能이 떨어났습니다. 法도 그녀의 눈에 없었고, 國家도 그녀의 마음 속에 없었습니다. 唯一의 目標은 돈에 있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여 저력을 먹기 위해 굶주린 호랑이가 사냥나가는 것과 같이 돈을 거둬들이는 데 미쳐 있었습니다. 돈을 착취하기 위해 國民을 拷問하였고(때로 隱密한 감옥에서 몰래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權

力으로 富裕한 사람에게 벼슬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하찮은 口實로 財物을 沒收하고 正義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녀가 任命한 盜賊과 같은 下級官吏가 地方商人들로부터 不法的으로 稅金을 거둬들이고, 農民으로부터 臨時稅金을 거둬 들이기 위해(그 額數는 매우 무거워 해마다 國家에서 거둬들이는 稅보다 컸습니다.) 全國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國民들의 生命을 自己의 食糧을 위해 기르는 돼지나 옥수수처럼 깔보았고, 國民들의 財產을 그녀의 발 밑에 있는 먼지 以上으로 생각치 않았습니다. 國王을 無視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國民들 사이에서는 國王은 一個人形이고 王妃는 그 人形을 갖고 노는 사람이라고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王妃의 돈 使用方法是 다음과 같았습니다.

(1) 國民들이 굶주림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宮中에서는 每日같이 밤마다 宴會가 베풀어졌습니다.

(2) 國民들은 拷問과 착취의 고통으로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외치고 있을 때에도 그녀는 自己의 永生을 빌기 위해 天神과 國內의 땅과 山川의 精靈, 그리고 數百萬의 偶像에 대해 祭物을 바쳤습니다.

(3) 온나라가 어둠 속에 놓여 있을 때 宮中 안은 電氣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새로운 文明의 빛을 보여주었으나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4) 그녀 自身과 寵臣(그들 중에는 無識하고 墮落한 人物인 現 워싱턴駐在公使 李範晉, 駐日公使 李夏榮, 그리고 現 軍部大臣 李允用이 들어 있습니다.)들에게 값비싼 寶石과 명주 옷감이 下賜되었습니다. 軍인과 官吏들에게는 下賜되지 않았는데 前者는 約 1년 半 전부터, 後者에게는 10년이나 5~6년 전부터 除外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당 外에 占치는 사람, 노래부르는 사람, 춤추는 사람, 그리고 各階各層의 兩班들이 王妃의 寵愛를 얻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宮中에 모여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改革을 시작한 이후 한국은 당장 變해야 되고 改革이 必要하

다는 것을 우리들은 國王과 王妃에게 이야기하였고, 國家와 그들 自身을 위해 改革의 빛이 되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王妃는 改革이 進行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나라의 政治에 대해 어떠한 干涉도 하지 않겠다고 約束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무시하고 奸邪하고 惡意에 찬 생각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러시아公使와 秘密裡 접촉하고 또 宣教師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기독교에 改宗하였습니다.

지난 가을 改革家 모두를 殺害해 버리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國王의 아버지인 大院君으로부터 發覺되었고, 大院君이 日本公使와 協議하여 日本人들로부터 若干의 도움을 얻어 그녀를 죽이기로 決定하였습니다. 그것은 實踐되어졌으나 大院君이 이 문제를 日本公使와 協議하고 公使로부터 若干의 도움을 청한 것은 큰 失手였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方法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地方 觀察使로 任命되어 任地로 赴任 중에 內閣에서 즉각 歸還하라는 命을 받고 돌아와 大臣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하우스」(Greathouse)로부터 間接的인 도움을 얻어 힘든 作業을 한 끝에 王妃의 稱號를 되찾을 수 있었고, 王妃의 殺害者는 死刑에 處해졌으나 大院君은 處罰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公使館으로 도망간 王妃의 寵臣들이 우리 內閣 大臣들을 내쫓으려고 하였으나 여러 方法으로 阻止되었습니다.

우리 國王은 마음이 弱하신 분이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러시아公使館에서 어떤 方法으로 그에게 傳達된 內容(이것은 제가 日本에 亡命은 뒤에 들었을 뿐입니다.), 즉 우리들이 國王을 廢位措置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짓 보고였습니다만 國王은 여기에 놀라 自己의 安全을 도모하기 위해 宮女의 옷으로 몸을 감추고 宮城守衛들에게 발각되지 않음으로서 러시아公使館으로 逃亡하였습니다. 이 事件은 今年 2월 11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國王을 還宮시켜 보려고 若干 努力을 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內閣으로 갔으나 大臣 중 한 사

람도 보이지 않았읍니다. 모두 自己들의 安全을 위해 어디론가 가버렸고, 단지 우리의 總理大臣만은 國王을 謁見하여 還宮을 請하기 위해 러시아公使館으로 가는 途中 붙잡혔읍니다. 저는 전혀 그 事實을 모르고 身邊保護의 軍人들을 소집시키고자 하였으나 指揮官을 찾을 수 없었읍니다. 노여움에 저는 몹시 흥분되어 內閣 안에서 가마에 앉아 사랑하는 祖國에 대해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읍니다. 그러나 나라를 救하는 方法을 찾지 못하였고 오히려 危險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읍니다. 저를 체포하라는 國王의 口頭命令을 받고 5名の 巡檢이 나타났읍니다. 저는 그들에게 큰 소리로 “그대들은 한국의 巡檢이고 나는 內部大臣이다. 國王이 外國公使館에 있는 限 國王이 한국政府의 大臣을 체포할 權限이 없다. 그러니 그대들은 그에게 忠誠할 義務가 없다. 그리고 國王도 또한 判事의 同意 없이는 사람을 체포할 權限이 없다”고 외쳤읍니다. 그러자 “忠臣은 國王을 위해 말을 듣는 것이 正當하다고 생각하니 國王의 命을 따르도록 하라”고 巡檢은 저에게 말하였읍니다. 이에 대해 저는 “나라 全體가 러시아에게 넘어간 이 때 개처럼 죽기 위해 忠誠을 하기는 싫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러자 그 중 두 사람은 저의 말에 若干 움직였으나 나머지 세 사람은 저와 對決하고 있는 동안 令狀대로 체포하겠다 하고 저를 붙잡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저는 칼을 빼들고 그들을 밀어젖혔더니 그 중 두 사람이 제가 逃亡가도록 護衛를 해주었고, 마침 두 日本人을 만나게 되어 그들이 저를 크게 도와 주었읍니다. 逃亡가는 도중 세번이나 성난 群衆과 부딪혔지만 지금에는 無事히 日本에 와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읍니다.

▲ 해설

- ①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글 앞에는 따로 3面の 편지가 붙어 있었을 것이다.
- ② 앞에 있었던 3面の 편지가 빠져 있으니까 편지를 쓴 시기는 알 수 없다. 그

러나 위의 글 중에 國王이 러시아公使館으로 간 것이 今年 2월 11일 아침이라고 있어 1896년에 쓴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아마 유길준이 日本으로 亡命한 지 한두 달 內에 쓴 것이 아닌가 한다. 萬苦 이 추측대로라면 이 편지를 쓴 것은 1896년 3월이나 4월일 것이다. 자기의 亡命 동기를 「모오스」교수에게 보고해야만 했을 것이다.

- ③ 改革案이란 1895년 金弘集·朴泳孝 內閣에서 作成·實施한 것을 말한다. 그때 유길준은 內閣總書, 즉 內閣書記長에 있었다. 改革案 뒤에 나오는 글은 편지투로 써여져 있어 敬語體로 번역하였다.
- ④ 閔妃弑害事件을 正當化하고 있다. 이는 유길준이 親日內閣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⑤ 閔妃가 기독교에 改宗한 일은 없다. 유길준이 그녀를 批判하기 위해 그렇게 主張하고 있다 할 것이다.
- ⑥ 閔妃가 改革家, 즉 內政改革을 추진하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大院君이 발각하여 이를 日本公使에게 알리고 그의 도움으로 閔妃弑害를 敢行하였다고 쓰고 있다. 이는 日本側과 親日內閣의 罪相을 감추려는 意圖에서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首肯하기 힘들다.
- ⑦ 閔妃弑害事件 직전 유길준은 義州觀察使로 任命된 바 있다.
- ⑧ 「그레이트하우스」란 Clearence R. Greathouse 로 한국政府의 外交顧問으로 있었던 美國人이었다.
- ⑨ 閔妃弑害事件 직후 親日內閣에서 廢位詔勅을 公布한 바 있으나 列國公使들의 강력한 抗議로 10월 26일 廢妃를 復位시키는 詔勅을 내렸는데, 유길준은 자기들의 功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⑩ 러시아 公使館으로 逃亡한 寵臣들이 우리 內閣大臣들을 내쫓으려고 하였으나 어떤 方法으로 阻止되었다는 말은 1895년 11월 28일에 일어났던 春生門事件을 가리킨다. 親日政權에 포위되어 不安과 恐怖에 떨고 있는 國王을 宮城 밖으로 모셔가 親日政權을 打倒하고 새 政府를 수립해 보려던 事件이었다. 그러나 親衛隊 大隊長의 密告로 失敗로 돌아갔다. 그리고 러시아公使館으로 도망간 寵臣이란 李範晉·李允用 등을 가리킨다.
- ⑪ 國王의 俄館播遷을 親日內閣의 立場에서 批判하고 있다.
- ⑫ 總理大臣이란 金弘集을 가리킨다. 그와 함께 農商工部大臣 鄭秉夏도 체포되어 光化門 附近的 警務廳으로 끌려가는 途中 群衆의 손에 依해 無慘히 희생되었다.
- ⑬ 글의 마지막 部分은 유길준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여 日本에 亡命하였던가를 敘述하고 있다. 그는 그 뒤 1907년 8월까지 11년간 日本에서 亡命生活을 하였다.

[17]. 1896년 7월 2일, 日本 東京에서

E.S. 「모오스」 교수님

저는 여러 通의 편지를 교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첫번째는 上海를 통해, 두번째는 日本에서, 세번째는 워싱턴駐在 한국公使館을 통해 보냈으나 교수님으로부터 아무런 回答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긴 편지를 쓰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果然 저의 편지가 교수님께 도달되려는지, 안되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쿠자와」(Fukuzawa) 선생을 통해 回答을 보내 주십시오. 교수님의 가족과 「셀럼」(Salem) 사람들에게 問安을 부탁드립니다. 敬具. 유길준.

▲ 해설

- ① 이 편지는 漢紙에 붓으로 써서 보낸 것이다.
- ② 上海, 日本, 駐美公使館을 통해 보냈다는 편지는 앞의 [16]의 「우리들이 作成한 改革案」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의 情勢며,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亡命하게 되었던가를 설명한 편지가 「모오스」교수에게 必히 傳達되기를 바랐던 것 같다.
- ③ 「후쿠자와」란 福澤諭吉을 가리킨다.

[18]. 1896년 12월 3일, 日本 東京에서

敬愛하는 E.S. 「모오스」 교수님

7월 28일 字와 8월 7일 字 교수님의 편지를 12월 1일에 같이 받았습니다. 後者에는 제가 존경하는 옛날 친구 「초트」(Choate) 가족의 편지가 同封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어버이와 같은 친절한 지도를 받다가 眞心으로 슬픈 作別을 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교수님의 손으로 쓰신 편지를 보고 또 교수님과 교수님의 가족 모두 無故하시다니 실로 기쁘기 限量이 없습니다.

「존」은 무슨 科目을 전공하고 졸업을 하여 좋은 일자리를 얻었는지요. 그리고 「에디스」嬢은 좋은 男便과 결혼을 하였는지요.

교수님이 어머니를 여의고 또 「초오트」(Choate) 判事와 「부르크스」(Boroks) 女史가 別世하였다 함은 매우 섭섭한 일입니다. P. 「로웰」(Lowell)은 어떤지요. 昨年(에옛날에……筆者) 그에게 빛을 졌습니다. 우리 政府에 依해 제가 미국에 派遣되어 공부한 비용은 政府에서 支拂되어야 한다고 政府에 陳情하였습니다.

우리 度支部大臣은 저에게 萬若 「로웰」氏가 作成한 正確한 計算書를 가져온다면 支拂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前 駐美公使 徐光範氏를 통해 「로웰」氏에게 그 말이 전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무일푼의 亡命客으로 日本에 있고, 前 度支部大臣은 지난 해 群衆의 소동으로 被殺되었습니다.

저는 20 명의 亡命客과 함께 日本에 와 있고 年老한 「후쿠자와」 선생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生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많은 일을 할 수 없으나 무엇인가 해야 되겠습니다. 亡命客들이 저를 지도자로 우러러보고 때로 도와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昨년에 한국을 위한 將來의 일군으로 100名 以上の 학생을 日本에 派遣하여 그들을 教育시키고자 「후쿠자와」 선생의 學校에 入學시켰으나, 그들 중 3分の 1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70명 가량이 저와 같이 있습니다.

이들 학생에 대한 經費도 한국政府에서 支拂을 停止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와의 契約으로 (신중한 검토 끝에 작년에 체결되었습니다.)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困難한 狀況이 지나가자 한국정부에서는 다시 그들을 한국으로 歸還措置를 取하였으나 모든 학생들이 그 命에 服從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敬愛하는 「모오스」 교수님. 우리들은 專制的인 壓制로부터 2千萬의 靈魂을 救하고, 또 자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不法의인 拷問에서 그들의 生命을 救하고, 나쁜 官吏들로부터 착취나 略奪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財産을 보호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東쪽의 「폴랜드」가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國家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若干 바빠 아드님 「존」君과 따님 「에디스」嬢, 그리고 「초오트」(Choate) 가족에게 편지를 쓸 시간이 없어 며칠 뒤에 그들에게 쓰겠습니다.

교수님의 가족과 「셀럼」(Salem)의 저의 옛 친구 모두에게 問安바랍니다.

敬具, 유길준(署名)

▲ 해설

- ① 「초오트」란 William G. Choate 를 가리키며, 地方判事였다. 「초오트」家は 「셀럼」의 名門 집안이였다.
- ② P. 「로웰」이란 Percival Lowell 을 가리킨다. 편지 속에 나오는 昨年이란 틀린 말이고, 옛날이라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옛날 미국에서 공부할 때 「로웰」로부터 돈을 빌려쥔 것 같다.
- ③ 被殺된 前 度支部大臣은 魚允中을 가리킨다. 俄館播遷 때 희생되었다.
- ④ 亡命客이란 大部分 俄館播遷 뒤에 日本으로 간 사람들이다. 모두 親日內閣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代表의인 사람은 法部大臣이었던 張博, 軍部大臣이었던 趙義淵, 前 警務使였던 權滄鎮, 親衛隊 幹部였던 李軫鎬, 李斗璜, 李範來 등이었다.
- ⑤ 年老的 「후쿠자와」란 福澤諭吉을 가리킨다.
- ⑥ 유학생은 1895년에 派遣한 114名の 학생을 가리킨다. 모두 福澤諭吉이 경영하던 慶應義塾에 들어갔다. 이 때 派遣되었던 유학생의 名單과 韓國政府가 慶應義塾과 체결한 契約內容에 대해서는 다음의 論文, 즉 「아베 히로시」(阿部洋), “‘解放’ 前 韓國에 있어서의 日本留學”(『韓』 Vol. 5 No. 12, 韓國研究院, 東京 1976, 12) pp. 24~27 을 참조할 것.

[19]. 1897년 6월 7일, 日本 東京에서

敬愛하는 「에드워드」 S. 「모오스」 교수님

제가 오랫동안 軟禁되어 있을 때 著述하여 1894년 日本에서 印刷한 이 책은 바깥 世界에 대해 國民들의 생각을 넓혀 보려는 目的으로 無料로 우리 國民들에게 配付하였읍니다. 한때 이 책은 우리 國民들이 몹시 환영하고 어디에서나 큰 人氣를 끌면서 읽혔으나 제가 亡命한 이후로는 보는 것조차 禁止되고 있습니다.

저는 約 1년 이상 日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후쿠자와」 선생으로부터 若干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가 돌보아야 될 7,8명의 사람이 있고, 또 앞으로의 일을 위해 그들을 飢餓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必要 때문에 저는 若干의 도움을 求해야 될 立場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에게 저의 슬픈 처지를 도와주기를 간청합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財政이 허락한다면 기쁘게 도와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오스」 가족 모두와 「셀럼」에 있는 옛 친구들에게 저의 친절한 問安을 바랍니다. 敬具. 유길준.

〈追伸〉「후쿠자와」 선생이나 『지지신포』(時事新報)를 통해 부디 回答을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 回答은 迷路로 가지 않고 저에게 직접 전달될 것입니다.

▲ 해설

- ① 유길준이 著述한 책이란 『西遊見聞』을 가리킨다. 日本 東京에 있었던 交詢社에서 1895년 4월 發行하였다. 유길준은 이 책을 「모오스」 교수 앞으로 부쳤던 것이었다. (餘談이지만 지난 1월 筆者는 「셀럼」의 피바디 박물관에서 유길준이 우송한 책을 수소문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 ② 유길준은 『西遊見聞』 1,000部를 印刷하고 직접 署名하여 이 편지의 內容처럼 無料로 많은 사람들에게 贈呈하였다고 傳한다.
- ③ 「후쿠자와」(福澤諭吉)는 1882년 3월 이후 『時事新報』라는 신문을 發刊하고 있었다.
- ④ 亡命 중의 유길준이 「모오스」 교수 앞으로 財政的 원조를 청했는데 이에 대해 「모오스」 교수가 어떠한 對答을 하였는지 알 길이 없다.